

# 내방가사 향유자의 생애경험\*

이정옥\*\*

## 〈차례〉

1. 서론
2. 최초의 가사 경험
3. 생애의 가사 경험
4. 가사 필사 경험
5. 가사 소장 경험
6. 가사 창작 경험
7. 결론

## 1. 서론

본 논문은 현재 경상북도 일원에서 향수, 유통되고 있는 내방가사의 향유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수집된 계량화된 자료의 분석결과 보고이다. 내방가사나 그 향유자에 대한 현장조사나 또는 설문조사 방식의 선행업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sup>1)</sup> 그러나 그 후 20여년이 지나 상당

\* 이 논문은 2003년 제46회 전국 국어국문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하였다. 당시 토론을 맡아준 조세형 교수께 감사드린다.

\*\* 위덕대학교

1) 이원주, 『가사의 독자』,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1979.  
최근의 보고로는 이정옥, 『현재성의 내방가사』, 『국제고려학』 7호, 국제고려학회, 2001.

한 변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간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순응 또는 저항하면서 살아온 내방가사 향유자들과 그들의 내방가사가 어떤 형태로 존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상을 짚어볼 때가 되었다. 또한 본격적인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한 설문조사방식의 계량적 조사도 해 볼 필요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생애경험’이란 용어는 대강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에 실지로 하여보거나 겪어보면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또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에 관한 의식, 즉 내적 경험을 포함한 단편적이며 비조직적인 사실’이라는 정도의 사전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란 ‘인간이 살아오는 한평생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정한 시간마다 똑같은 상태나 변화를 되풀이 할 때, 그 일정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sup>2)</sup>

본 논문의 설문항은 인구 통계적 변수(인적사항) 13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44문항이다. 설문대상자는 경상북도 안동의 여성노인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설문항에 대한 노인들의 이해도가 낮아 무응답항이 많으며, 설문지 회수율도 매우 낮아 총 배부 수 150매에 비해 회수된 설문지는 100매에 불과하였다. 설문 시기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 농번기를 피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데이터분석은 SPSS와 MS-Excel프로그램을 병행 사용하였다.

2) ‘생애경험’과 ‘생애주기’라는 용어는 가족관계학,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다(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홍익재, 1995).

① 본 논문의 말미에 설문지를 첨부한다.

② 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신 “안동내방가사 보존회(회장 이선자) 회원이신 안노인분들, 특히 설문지 배포와 수거에 도움주신 이선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③ 또한 설문지 분석에 도움을 준 장덕희 교수(위덕대 사회복지학과)와 데이터분석을 도맡아 한 최영환(위덕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군에게도 감사한다.

## 2. 최초의 가사경험

### 2.1 최초의 가사경험

최초의 가사경험을 묻는 질문항은 모두 4항이다. 맨 처음 가사를 읽었을 때의 연령과 가사명, 가사를 읽게 된 동기와 그 느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을 묻는 항에서는 구체적인 나이를 물었으며, 다시 여성의 생애주기를 출가전·후와 장년, 그리고 환갑전·후 등 5시기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최초로 가사를 읽은 시기의 나이는 대체적으로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54%), 이는 생애주기별로도 출가 전에 가사를 처음 경험한 응답자가 54%와 일치한다. 그 다음은 환갑 후 22%, 출가 후 18%순이었다.

10~20대가 한글을 익히게 되는 시기이며, 가정에서 어머니나 할머니 등 가내여성을 통해서 한글을 익히게 된다. 이때 가장 쉽게 한글 문헌으로 접하는 것이 가사일 가능성이 높다.

<표 1> 최초의 가사 경험 나이

나 이	인원수(명)	비율(%)
1세~10세	22	22.0
11세~20세	32	32.0
21세~30세	4	4.0
41세~50세	4	4.0
51세~60세	2	2.0
61세~70세	8	8.0
71세 이상	2	2.0
무응답	26	26.0

### 2.2 맨 처음 읽은 가사

총 응답수 78편이었다. 그 중 <화전가> 11수, <한양가> 5수, <도산별

곡> 3수, <효행가> 3수, 그 외 2수씩 작품이 8수였다. <화전가> 11수가 가장 빈도수가 많으나 11수 모두가 동일 작품이라기보다는 <화전가> 유형의 서로 다른 작품일 가능성이 더 높다. 소설로 응답한 경우도 많은데 <권익중전> 2편을 비롯, <류충렬가>, <설낭자전>, <숙량가>, <주봉전> 외에 그냥 소설책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처음 한글을 습득하고 난 후 여성들을 통해서 가전되는 작품들을 읽을 가능성이 많다. 이때 처음 접한 유형의 작품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양가>와 <도산별곡>은 이 지역 어느 가정에서나 발굴될 정도로 필사본 자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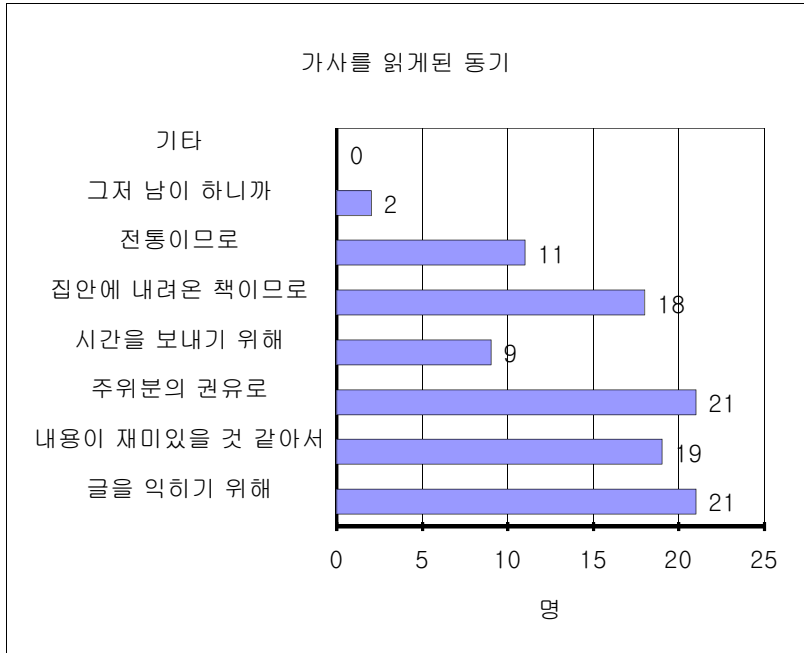
### 2.3 맨 처음 가사를 읽게 된 동기와 읽은 후의 느낌

본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효응답수는 모두 101항이었다.

“주위분의 권유”와 “글을 익히기 위해” 라는 응답이 2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내용이 재미있어서” 19명, “집안에 내려온 책이므로”가 1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위분의 권유”는 아마 최근 내방가사 보존회의 가입과 참여를 통한 권유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응답자들은 대부분 최근 들어 60세 이상, 환갑이후 처음 가사를 접한 노인들일 가능성이 많다.

처음 가사를 읽은 후의 느낌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반응이었다. 아주 좋았거나(48%), 좋았다는(40%)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그 느낌이 그들의 생애에 지속되어 현재의 가사경험까지 연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가사를 읽게 된 동기



### 3. 생애의 가사경험

본 질문항은 모두 41개이다. 질문항이 너무 많고, 특히 주관식 질문항이 많다 보니 응답률이 낮았다. 1번~2번은 가사 선호도에 대하여, 3번은 가사의 지은이에 대한 인지도, 4번~7번까지는 가사 읽는 시기를 연령대별, 생애주기별, 계절별, 하루 중 시간대별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8번~11번은 가사 읽는 방법과 영송시의 주위인물들의 반응을, 12~15번은 가장 좋아하는 가사와 그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연령대별, 생애주기별로 다시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15번은 좋지 않은 가사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16번~17번은 추천가사의 여부와 그 대상에 대하여, 18번은 가사입수 경위에 대하여, 19번은 가사경험의 방해자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상 총

41개항은 21개항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11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해 보았다.

#### 3.1 지금까지 읽은 가사의 제목

지금까지 읽은 가사의 제목으로 응답한 작품수는 총 28편이다. 한 수씩 든 경우보다 둘 이상의 작품을 든 경우가 많았다. <화전가> 23수, <한양가> 23수, <도산별곡> 11수, <화수가> 7수, <석별가> 6수, <백발가> 5수, <여행가> 5수, <칠석가> 5수, <야유가> 4수, <영남(칠십일주)가> 4수, <은사가> 4수, <이별가> 4수, <노탄가>, <부녀자탄가>, <사향가>, <숙향전>, <시절가>, <추월가>, <춘향가>, <회심곡>, <효행가>는 각 3수씩이었다. 역시 <화전가> 유형이 가장 선호되는 작품유형이었고, <한양가>가 매우 대중적으로 유통된 가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산별곡>이 많은 것은 안동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소설작품으로 응답한 경우도 많은데 <구운몽>, <(흥)길동전>, <류충렬가(2)>, <사씨남정기>, <설낭자전>, <숙향전(3)>, <심청가>, <조웅전>, <주봉전>, <춘향가(3)> 등이었다. <제문(회제선생제문)> 2수, <회심곡> 3수라고 답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가사 가전본에는 제문이나 사둔지 등의 생활문도 많이 발굴되는데 가사와 크게 구분짓지 않고 필사하고 낭송하는 향유전통이 남아 있다.

#### 3.2 가장 많이 읽은 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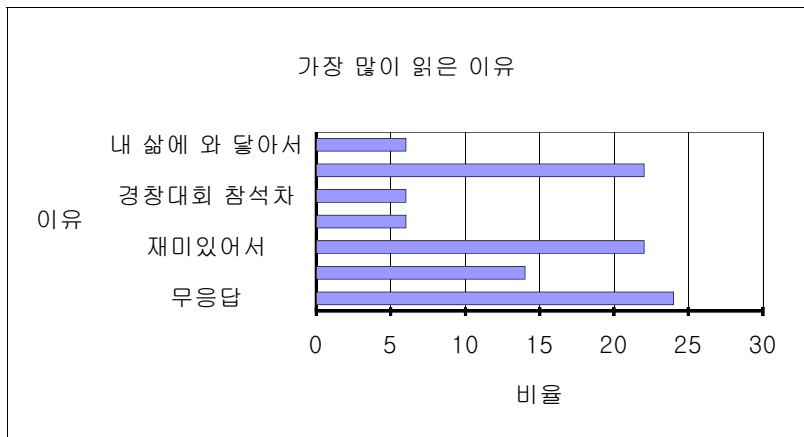
1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읽은 가사, 즉 가사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작품은 68편이었다. <도산별곡> 5수, <화전가> 5수, <한양가> 4수, <석별가>, <은사가>, <시절가> 등은 3수, <부녀자탄가>, <부모은중가>, <영남(칠십주)가>, <오륜가>, <칠석가>, <한리탐승가>, <회제

선생제문>, <효행가> 등은 2수씩이었다.

이와 같이 읽은 가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물었다. 무응답의 비율이 24%나 되었으나, “내용이 좋아”, 또는 “재미있어서”라는 응답자가 각각 22%씩 합해 44%나 되어, 가사선호의 가장 중요한 근거기준은 개인적인 선호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최근 경창대회가 개최되면서 “대회에 참석하기위해” 연습차 읽게 된 경우도 있으며, “가족들의 권유”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기타 이유로는 “시아버님이 지으신 것이어서”, “내 삶이 고달파서”, “유식하게 지은 것이니까” 등이 있었다.

<표 3> 가장 많이 읽은 이유

이유	인원수 (명)	비율 (%)
내 삶에 와 닿아서	6	6.0
내용이 좋아	22	22.0
경창대회 참석차	6	6.0
가족의 영향	6	6.0
재미있어서	22	22.0
기타	14	14.0
무응답	24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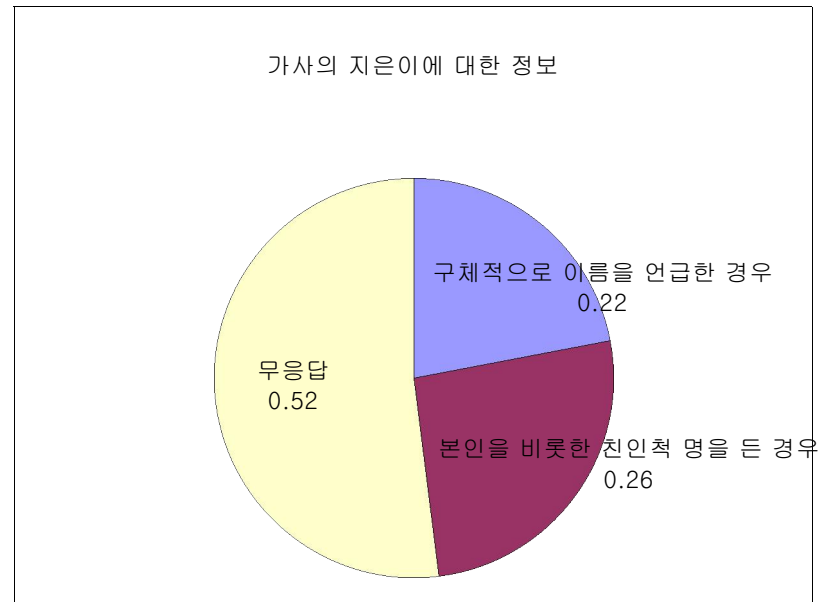
### 3.3 가사의 지은이에 대한 정보

가사의 지은이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아는 경우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각각 50%로 같은 비율이었다.

안다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인명을 언급한 경우(22명)보다는 본인을 비롯한 친인척 명을 든 경우(26명)가 더 많았다. 시아버님, 아버지, 어머니, 언니, 고모, 영양남씨 만종부, 영해사람, 영양사람, 윗대딸네, 윗대조상들, 조모, 주변형님들, 진성이씨, 친구의 친지 등.

모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작자미상이어서”가 가장 많고(8명), “어려서”나 “(작자에) 관심이 없어서”가 6명이었으며, 무응답이 70%나 되었다. 대부분의 가사작품이 작자무기명으로 전승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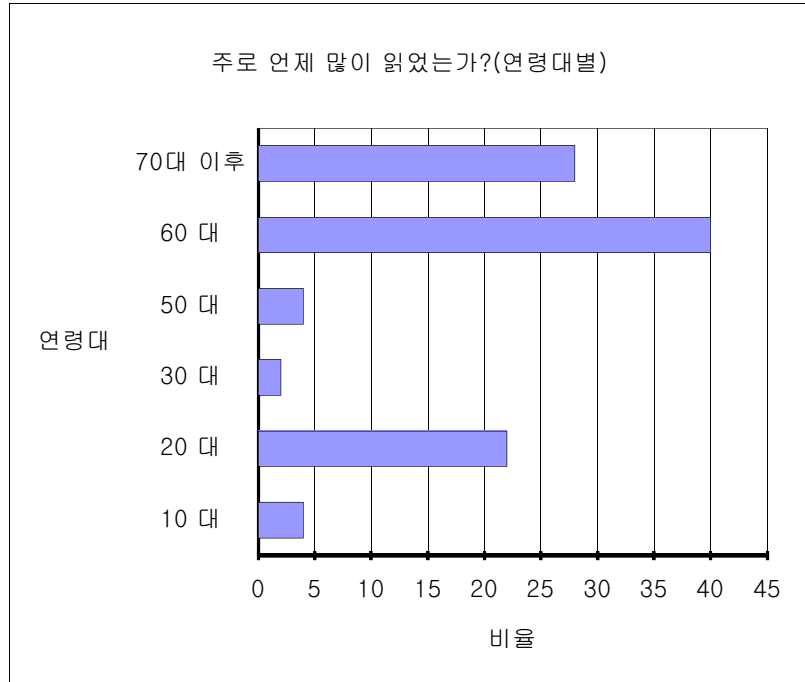
<표 4> 가사의 지은이에 대한 정보



### 3.4 가사를 읽은 시기

가사를 읽은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다. 연령대별, 생애주기별, 계절별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표 5> 주로 언제 많이 읽었는가?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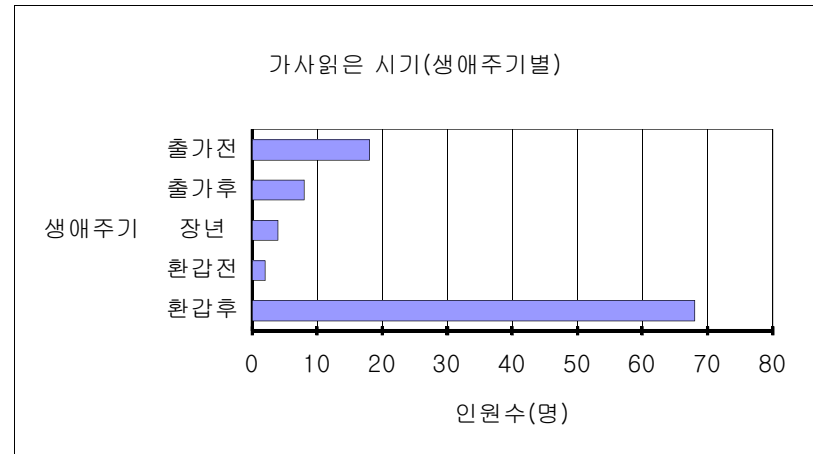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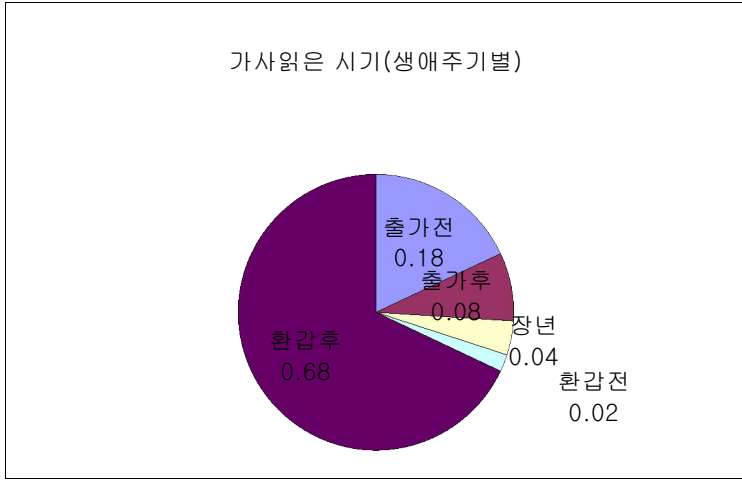
60대 40%, 70대 이후 28%, 20대 22%순, 60대 이후 68%로 나타난다. 10대와 20대가 26%이다. 30-50대는 6%에 불과하다. 10대와 20대는 한글을 익히는 시기이거나 계녀가 유형의 가사를 필사하는 시기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30~50대는 한창 시집살이 등의 가사노동으로 가사를 접할 여건이 안되었을 것이다. 6,0~70대 이후는 가내 노동에서 벗어나서 가정내에서 어른으로서의 가내 지위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사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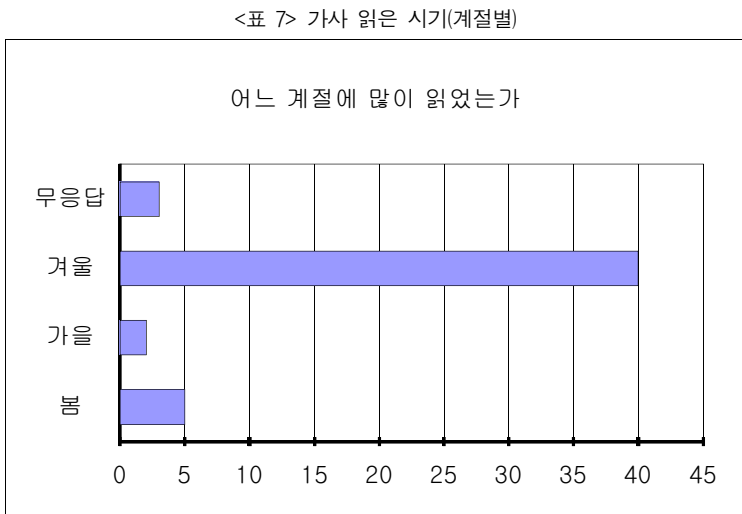
<표 6> 가사 읽은 시기(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인원수(명)	비율(%)
출가전	18	18.0
출가후	8	8.0
장년	4	4.0
환갑전	2	2.0
환갑후	68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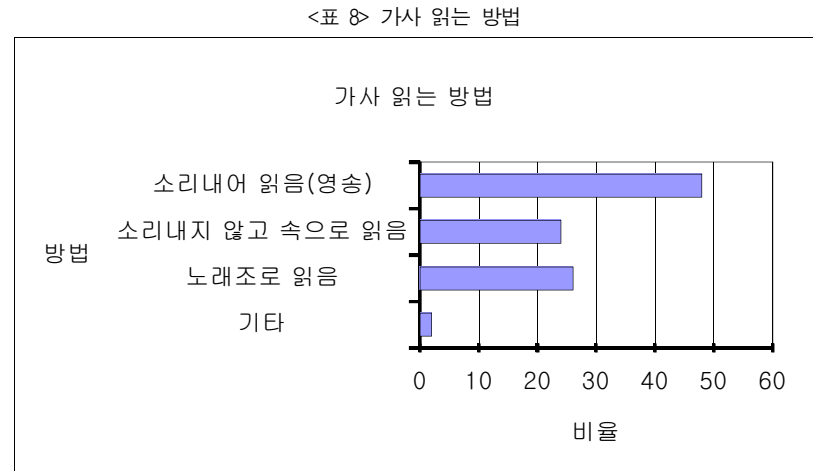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가사를 가장 많이 읽은 시기는 환갑 이후 68%로서 연령 대별 시기와 일치한다. 20대에 출가한 경우가 10대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환갑전과 장년기는 6%에 불과하다.



계절별로 유효응답 중 80%가 겨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도 밤이 길어서(12%), 추워서 바깥출입이 적어(6%), 휴농기로 한가하니까(10%), 심심하니까(8%), 잠이 오지 않아서(4%)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비록 양반사대부가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농촌의 농사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으며 크거나 작거나 간에 농업노동과 가내노동을 병행한 여성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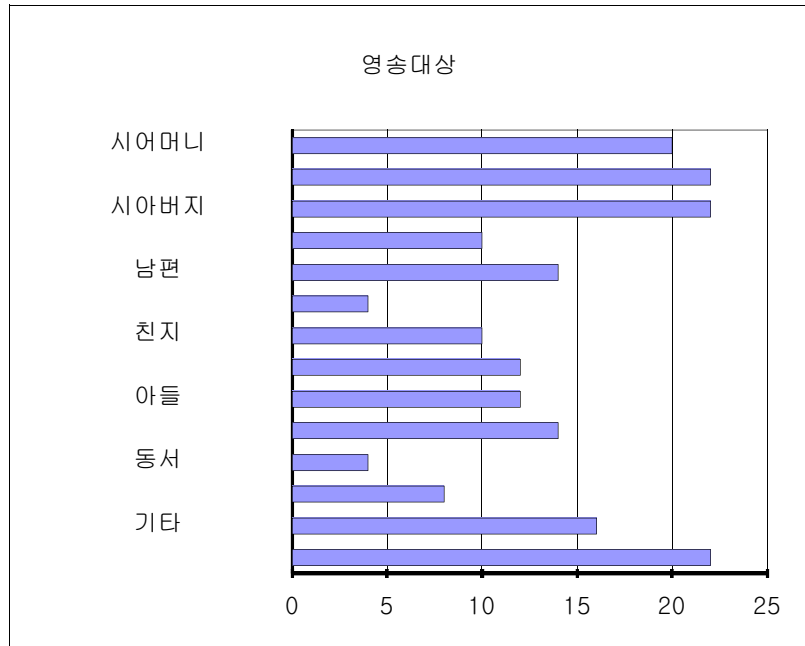
### 3.5 가사 읽는 방법

가사읽기는 소리 내어 읽거나(48%), 노래조로 읽은(26%)경우, 즉 소리를 내어 읽는 경우가 74%로,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 경우(24%)보다 훨씬 많았다. 낭송의 방법으로 가사를 읽었으며 어릴 때부터 웃어른들의 낭송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낭송의 리듬을 습득한 어른들이 많았다.



가사를 누구 앞에서 읽은 경우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시어머니 등 손윗사람 앞에서는 30%, 손아래 앞의 경우는 14%, 친구 앞에서는 14%인데 비하여 혼자서 즐기는 경우가 22% 정도로 나타난다. 혼자 읽는 경우(22%)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즐기는 경우가 많다.(78%) 이는 내방가사가 문자 기반의 기록문학으로서 일차적 전송방법은 필사에 의한 것이지만 이차적 전송방법은 구비문학적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응답자료이다.

<표 9> 영송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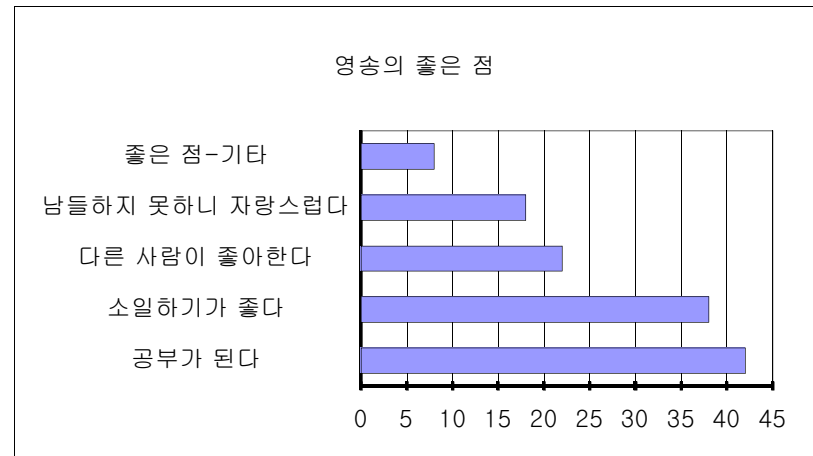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무응답 30%를 제외하고 “아주 좋아하거나” “좋아한 경우”가 각각 40%, 28%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 2%를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복수응답 가능한 문항이었다)

좋아한 이유로는 “어른들은 주로 내용을 이해하여 재밌어 한다.” (25명 중 13명), 또는 “초성이 좋아서”(5명)였으며, “아이들이 신기해 해서”, 혹은 “어머니가 읽으니까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좋아하지 않더라”는 응답의 이유로는 “글의 내용을 모르거나”, “문학에 취미가 없거나”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을 택한 경우, 그 좋은 점으로는 “공부가 되므로” 42명, “소일하기 좋아서”38명, “다른 사람이 좋아하므로” 2명, “남들은 하지 못해 자랑스럽다” 18명의 순이었다.

<표 10> 영송이 좋은 이유



### 3.6 가장 좋고 재미있었던 가사

모두 48편을 추천하였다. <화전가>7수, <부녀자탄가>3수, <오륜가>3수, <노탄가>, <도산별곡>, <유람가>, <퇴계시곡(퇴계사주)>, <효행가> 각2수씩 있었다. 추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38명이 응답하였는데, “교육적이어서”10명, “내용에 공감하여서”9명, “내용이 좋아서” 6명, “재미있어서”9명 등과 기타 경창대회 최우수작이어서 2명 등이었다. 대체적

으로 내용에 공감하고 교육적인 내용의 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좋았던 가사와 그 이유를 연령대별로,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표 11> 가장 좋았던 가사(연령대별)

연령별	가사 제목
10대	시골여자 설음가사, 화전가, 경계가, 시절가, 화전가
20대	고담종류 읽음, 경계가, 경계가
30대	춘풍관별곡, 봉우사모가, 석별가
40대	춘풍관별곡, 도산별곡, 봉우사모가, 배틀노래
50대	춘풍관별곡, 은사가, 노탄가, 자탄가
60대	회갑가, 춘풍관별곡, 이별가, 회심곡, 백발가, 퇴계시곡
70대 이후	삼춘가, 화전가, 여행가, 화수가, 한라탐승가, 이별가, 석별가, 회혼 경축가 회고가, 추월가, 도산별가, 화전가, 여행가, 노탄가, 은사가, 회심곡, 화수가

<표 12> 가장 좋았던 가사의 이유(연령대별)

연령별	이유
10대	교육이 되니까, 교육이 되니까, 관동팔경 경치를 훑은 가사 때문에, 스승이 잘 가르쳐 주신 가사여서 재미있고 배울점이 있어서
20대	교육이 되니까, 교육이 되니까, 관동팔경 경치를 훑은 가사 때문에, 스승이 잘 가르쳐 주신 가사여서 재미있고 배울점이 있어서
30대	시집살이하면서 힘들 때 많이 했음, 꽃다운 시절 놀기를 좋아하며 꽃떡굽던 생각에, 친구가 그리워서
40대	친구가 그리워서
50대	심심해서 읽었다, 노인이 되므로
60대	나만의 시간이 있다, 자랑스러워서, 자랑 취미스러워서, 뿌리를 찾아 생각할 여유가 있기 때문, 옛것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재미있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좋아서, 시간이 잘 간다, 소일하기 위해서, 심심하지 않아서 좋음, 하는일이 없으니 가사 읽기가 좋아서, 이별이 슬퍼서
70대 이후	친구들과 모여서 놀면서 부를 때, 글을 읽으면 심심하지 않아서 좋다, 살아온 시절을 반성하며 회심가를 읽었다.글씨를 알게 되니까, 시간 보내고 해서 심심하지 않다, 칠십이 팔십을 접어들면서 취미생활로 즐겁고방송국기자, 대학교수와 인터

	뷰를 하면서 즐겁게 사는 나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보람있다, 심심할 때본다, 뜻이 재미있지요, 이별이 슬퍼서, 옛날에는 살기 바빠 화수계에 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백발이 되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기타	시기별로 마음에 와닿는 가사내용이므로, 재미가 있어서

<표 13> 가장 좋았던 가사(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좋았던 가사
출가전	경려가, 화전가, 후민가, 삼국지, 옥루몽, 오륜가, 한양가
출가후	고대소설, 시아버님이 지어서 주신 영남칠십주가, 도덕가, 봉우사사모가
장년	화전가, 노탄가
환갑전	오륜가, 이별가
환갑후	삼춘가, 기타 등, 한라탐승가는 가사내용이 유익하고 경창대회에 나간 경험이 있다, 문장이 너무 흥미로워서, 화전가, 역사가 재미있어서, 이별가, 한 번씩 만나서 놓고나면 화수가를 짓는다.

<표 14> 가장 좋았던 가사의 이유(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좋았던 이유
출가전	재미가 있어서, 어른들이 많이 들려주어서 좋아했다, 글을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 재미있어서, 어머니가 좋아해서, 배울 점이 많아서
출가후	시부모가 허락해서, 아름다워서
장년	농사짓고 사니 밖에 출입을 못했는데 가사를 읽어보면 집에 앉아서 여러 곳 지향을 알 수 있도록 지어두어서 좋았다. 화전놀이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노인이 되므로
환갑전	자랑 취미, 이별이 슬퍼서
환갑후	자랑스러워서, 역사적 내력을 알기 위해, 내용이 잘 되어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심심치 않아서, 재미있어서, 노후가 안정되어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서, 이별이 슬퍼서, 글을 지어서 다음에 만나서 나누어 준다.
기타 -	유익하니까, 무조건 좋으니까

### 3.7 좋지 않은 가사 유무

좋지않은 가사가 있는가 라는 대한 물음에 “없다”는 응답이 64%였고, “있다”와 무응답이 18%씩이었다. 좋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구절이 어려워서”, “남편을 욕이오에 잃은 슬픔이 있어서”, 또는 “내용이 별로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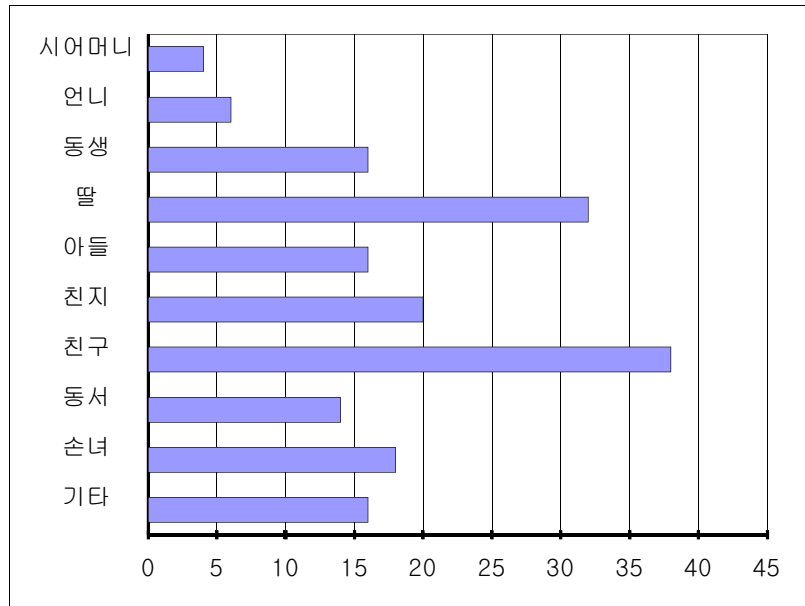
지 않거나 재미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좋지 않은 가사는 없다고 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가사는 모두 좋은 내용이거나 유익하다”고 판단되거나 가사를 읽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기본적으로 설문대상자들이 가사를 알고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부정적인 답이 없으리라 생각했으나 내용과 개인적인 경험과 상황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

### 3.8 남에게 권장하고 싶은 가사유무에 대한 질문

가사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나 추천하고 싶은 가사가 있는지, 그 각각의 이유를 물었다.

<표 15> 가사 추천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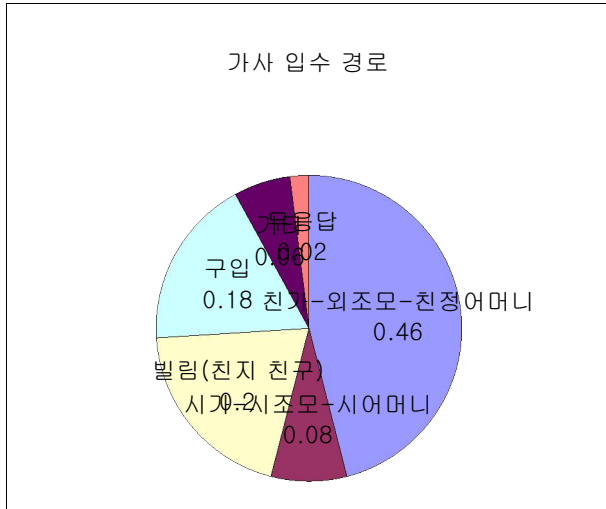


가사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친구, 딸, 친지, 손녀 등 지친 순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내용이 좋거나”, “교육적이어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사를 소개하고 싶어서”나 “현대인은 가사를 잘 읽지 않으니 전승하고 싶어서”, 특히 “국문학을 전공한 손녀가 있어서” 라는 응답도 있었다. 추천하고 싶지 않은 가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72%가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가사에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가사가 없는 이유로는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가사를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가사가 “내용이 좋거나 재미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싫은 가사를 가까이 한 일이 없다”며 가사 선별력을 과시적으로 나타내는 응답도 있었다.

### 3.9 가사의 입수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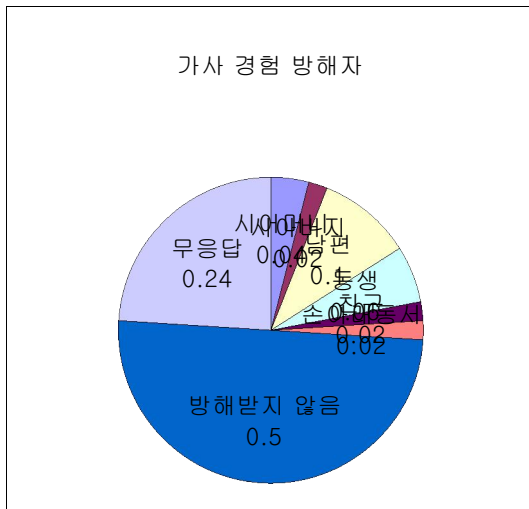
가사의 전승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항이었다. 대부분의 가사향유자들은 친정에서부터 가사를 읽히고 향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가에서의 전승경로는 미미하여 친구나 친척에게서보다 적었다. 친가-외조모-친정어머니의 경로가 46%로 가장 높았다. 친지나 친구에게 빌리거나(20%), 구입하는 경우도 18% 정도였다.

<표 16> 가사 입수 경로



3.10 가사경험 방해자와 방해요인 및 대처방법

<표 17> 가사 경험 방해자



방해 받지 않은 경우가 50%나 되었다. 이 결과는 아마도 환갑이후의 가사경험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방해한 이유로는 “일해야 하니 까”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방해하는 방법으로는 “꾸중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12%), “가사를 빼앗아간 경우”가 4명, 감추거나 아예 찢은 경우도 각 1명씩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사읽기를 허락받거나 용인된 상황에서 읽을 수 있었으니 가사 경험의 주위환경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가사를 읽지 못하게 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감춰두고 몰래 읽은 경우” 14%, “저항하고 그냥 읽었다”10%, “읽는 것을 포기한 경우”가 4%였으며 이 질문의 경우 무응답이 70%나 되었다.

<표 18> 방해에 대한 대처 행동

대처 행동	인원수(명)	비율(%)
저항하고 그냥 읽었다	10	10.0
감춰두고 몰래 읽었다	14	14.0
읽는 것을 포기했다	4	4.0
기타	2	2.0
무응답	70	70.0

3.11 가사를 읽지 않는 주위사람의 유무

주위에 가사를 읽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76%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글을 몰라서”40%, “재미를 몰라서”32%로 응답하였다. 가사를 못 읽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2%)

가사를 읽을 수 있는 문자 해독 능력이 있고, 가사의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신에 대하여 대단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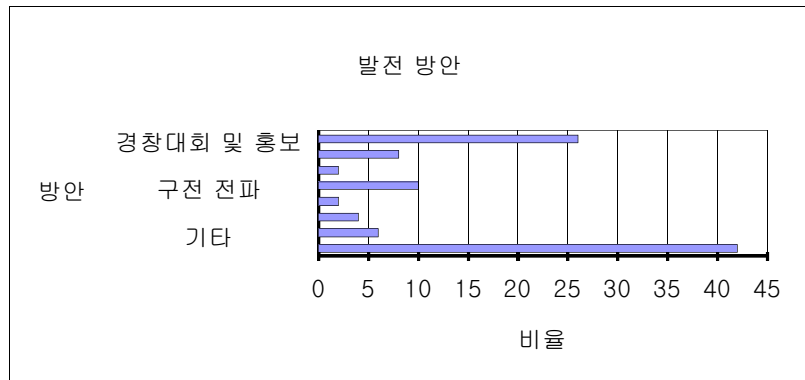
<표 19> 가사를 읽지 않는 이유

읽지 않은 이유	인원수(명)	비율(%)
글을 몰라서	20	40.0
재미를 몰라서	16	32.0
못읽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1	2.0
무응답	13	26.0

### 3.12 가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가사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42%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내방가사경창대회나 홍보를 통해 발전시키는 방안이 가장 많았다. 현재 자신의 개인적인 흥미와 관심사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젊은 세대의 발굴, 책출판, 연구와 창작 등이 있었다.

<표 20> 가사 발전 방안



## 4. 가사필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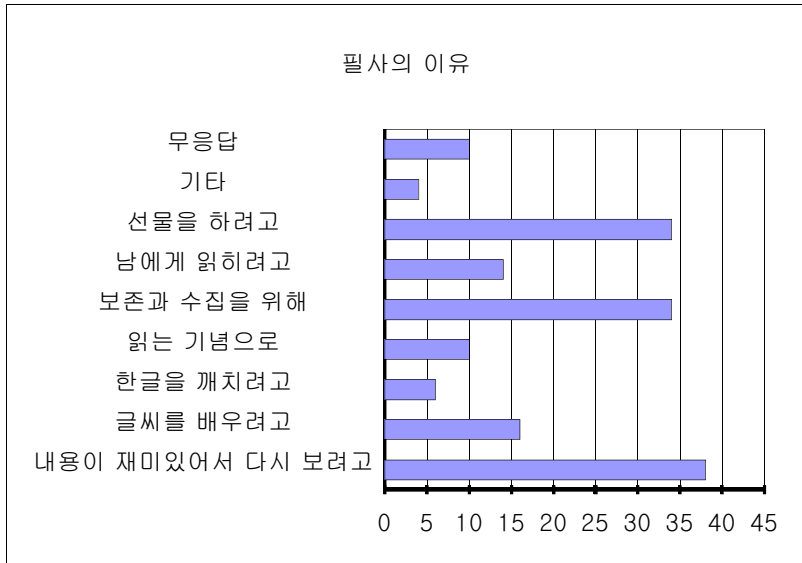
### 4.1 필사 가사명과 작품 수, 필사의 이유

1편에서부터 셀 수 없이 많다는 응답까지 매우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1편 5명, 2편 3명, 3편 3명, 4편 이상 10편 6명, 10편 이상 20편까지 2명, 30편 이상 1명, 40~50편 1명 과 같이 구체적 편수를 제시한 경우도 있으나, ‘수십권’, ‘수없이 많다’, ‘많이 필사했다.’, ‘많이 쓰고 있다.’, ‘많이 써보았다’ 등의 답변도 7명이나 있었다. 구체적인 작품명을 든 응답자도 있었는데 작품명으로는 <딸둔어미사별>, <담배귀>, <사돈지>, <사찬가>, <여느자소회가>, <여환별곡>, <위장지>, <일생회상>, <제문>, <부녀소회가>, <한양가>, <화전가>, <부모은공가> 등이 있었다.

필사의 이유는 <표 22>와 같이 “내용에 대한 흥미”가 38%로 가장 높고, 보존 전승적 가치에 그 이유를 꼽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34%). “선물을 하려고”라는 응답도 34%나 되었는데 후손이나 친구들에게 필사하여주고자 하는 이유 인 듯 하다.

생애주기별 필사 시기는 환갑 후 52%로 가장 높았고 출가전후에 각각 16%, 14%, 합하여 30%로 다음으로 높다. 장년기에는 거의 필사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가사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표 21> 가사 필사의 이유



## 5. 가사 소장 경험

### 5.1 소장 가사와 작품 수

1권 1명, 3권 4명, 4권 2명, 5권(정도) 4명, 6권 2명, 8권 2명, 10권 3명, 15권, 1명, 20편 1명, 30권 1명 외에 수집권의 가사책과 두루마리와 소설 <사시남정기>가 있다는 답변도 있으며, 여러권, 많이 있다는 답변도 3명 정도 있었다.

### 5.2 소장이유와 활용방법

가사를 소장하고 있는 이유로는 “후손에게 가르치고 물려주기 위해” 22명, “보존과 수집을 위해” 21명, “내용이 재미있어서 다시 보려고” 20

명으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개인적인 향유가치와 함께 전승 보존적 가치, 교육적 가치를 거의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장가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돌려 읽고 있거나”(21명), “후손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15명)가 많으나 “아직 활용 하는 방법을 모른다”(7명)는 응답자도 많았다. “심심하면 읽는다”(기타2명)는 개인적 효용성만을 피력한 응답도 있었다. 무응답자가 많았다.

### 5.3 소장가사를 물려주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

딸13, 며느리 10, 손녀4, 손자1, 아들2, 아들과 딸1, 외손녀1, 동서1, 사돈1, 사촌1, 자녀3, 자손들2, 자식들2, 후손2으로 총 응답 중 사돈1, 동서1, 사촌1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를 포함한 후손들이었다. 그 이유로는 64명의 응답 중, “교육적 이유” 18명, “전승과 보존” 30명, “관심 있는 사람이어서” 8명, 기타8명이다.

### 5.4 소장 가사 중 인쇄나 출판하고 싶은 가사

총 응답자 24명 중, “없다” 6명, “많다” 2명, “많았는데 이젠 별로 없다” 1명, “모두다” 1명이었고 작품명으로는 <격여가>, <고회가>, <금강산유람가>, <도산별가>, <백발가>, <오륜가>, <우미인가>, <은공가>, <자탄가>, <중국기행문>, <화수가>, <화전가> 2수, <회심곡> 2수 등을 꼽았다. 이들 가사는 내방가사 보존회에서 출간한 [영남의 내방가사]나 [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에 수록된 가사명과 일치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길이보존하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책에 있다”, “내방가사(경창)을 열 때 딸에게 많이 주었다”,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서”, “모두들 읽고 옛날 여인들의 삶을 되새기길 바라며”, “보존을 위하여”, “오래두고 보기위해”, “외국 다녀온 기념으로”, “요즘 내방가사책이 많이 나와 있다”, “요즘 아이들이 잘 읽지 못하므로”, “육이오를 상징

하는 내용이어서”, “자취를 남기고 싶어서”, “재미있어서”, “지난일이 그리워서” 등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그 중 “보존가치”에 의미를 둔 3경우의 응답을 제외하면 통계처리 하기에는 부적절한 질문항이었다.

### 5.5 소실가사의 유무와 그 이유

무응답자가 많았으나 응답자들 중 대부분은 “빌려가서 안주니까” 라고 응답하였으며, “예전 교수(학자)들이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았다” 는 응답자도 7명 있었다.

## 6. 가사 창작 경험

### 6.1 가사 창작 경험

가사창작 경험의 유무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42%, 없는 경우가 58%로 창작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16%나 더 많았다. 가사 향유경험 중 읽고, 필사한 경험보다는 창작경험이 훨씬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창작가사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명이 응답하였다.

<기유년 시어머니 감사기> - 회갑을 못 넘기시고 별세하셔서 너무 슬퍼서

<부모은공화전가> - 삼강오륜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뜻으로

<석별가> - 출가할 때 슬퍼서

<화전가> - 봄날을 즐기며 꽃을 보고 친구들과 한담하는 내용

<회고가> -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내용

<노설가> - 일생을 되돌아보며 살아온 과정 노래

<자녀훈육가> - 교육적인 내용, 인간(여자)도리

위와 같이 창작 가사의 제목과 그 내용을 제시한 경우의 답변도 있었으나 “6.25에 남편을 읽고 삶의 고달픔을 적었다”, “도덕성이 있는 글”, “살아온 것을 적었다”, “화전하러 간 내용”등과 같이 내용만을 제시하거나, <금강산기행가>, <금강산관광가>, <동남아 관광유람가>, <사돈지>, <제문>, <소화가>, <여자소회가>, <자녀훈계록>, <자탄가> 등과 같이 가사의 제목만 제시한 응답도 있었다. 회고적인 내용, 관광과 유람, 화전놀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적 내용, 자녀교육 적 내용 등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 6.2 창작한 연령과 동기

18명의 응답자가 있었다. 17세 1명, 30~40세 2명, 50대 2명, 60대 이후 5명, 70대 이후 8명 등으로 일찍이 17세부터 지은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60대 이후 (13명)에 창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생애의 가사경험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다. 창작동기로는 “일생을 기록하고자 하여” 4명, “행사, 유람, 관광을 기념하기 위해” 4명, “교육적동기로” 3명, 그 외 “재미와 취미로” 2명 등이었다. 앞의 창작가사와 중복적인 문항이라 이해해서인지 본 문항 역시 응답자가 많지 않아 19명에 그쳤다.

### 6.3 앞으로 창작하고 싶은 내용의 가사

앞으로 꼭 창작하고 싶은 가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3명만이 응답하였다. 참고로 밝힌다.

- \* 남북이 하나되어 훌륭한 대한민국이란 명칭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가사
- \* 내평 생 소원을 쓰고 싶다.
- \* 평생 수기를 쓰고 싶다.

## 7. 결론

본 논문은 현재 경상북도 일원에서 향수, 유통되고 있는 내방가사의 향유자를 대상으로 한 내방가사에 대한 그들의 의식 및 향유형태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계량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국문학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와 분석방법을 통한 최초의 보고자료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내방가사 향유자에 대한 대체적 의식조사가 필요하다면 현재 생존해 계신 가사 향유자에 대한 설문 조사가 가장 유용하리라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의 설문항은 인구 통계적 변수(인적사항) 13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44문항이다. 설문대상자는 경상북도 안동의 여성노인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노인들의 설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무응답항이 많으며, 설문지 회수율도 매우 낮아 총 배부 수 150매에 비해 회수된 설문지는 100매에 불과하였다. 설문 시기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 농번기를 피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데이터분석은 SPSS와 MS-Excel프로그램을 병행하였다.

인터뷰에 의한 구술조사를 병행했어야 했으며, 질문항이 너무 많은 탓으로 무응답항이 많았다. 또한 중복되는 질문항도 있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홍익재, 1995.
- 이원주, 「가사의 독자」,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1979.
- 이정옥, 「현재성의 내방가사」, 『국제고려학』 7호, 국제고려학회, 2001.
- \_\_\_\_\_, 「내방가사 향유자의 생애경험」, 『제46회 전국 국어국문학 학술대회 발표집, 국어국문학 업적 평가의 제문제』, 국어국문학회, 2003.

<투고일 : 2009. 6. 30. 심사일 : 2009. 7. 16. 심사완료일 : 2009. 8. 11.>

## <자료>

# 내방가사 향유자 조사 설문지

본 설문지는 현재 경상북도에서 내방가사를 향유하는 분들에 대한 상세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현재 경북의 내방가사 향유자의 현황을 파악, 다양한 논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문 및 연구 책임자 : 위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정옥

주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

위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 054-760-1692(연구실), 011-9388-2459(휴대폰)

전자주소 : [jolee@uu.ac.kr](mailto:jolee@uu.ac.kr)

### I. 최초의 가사경험

1. 맨처음 가사를 읽었을 때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세

① 출가전 ② 출가후 ③ 장년 ④ 환갑전 ⑤ 환갑후

2. 맨처음 읽은 가사는 무엇, 무엇 입니까?

3. 맨 처음 가사를 읽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① 글을 익히기 위해

- ② 내용이 재밌을 것 같아서
- ③ 주위분의 권유로(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언니, 친지, 친구, 기타)
- ④ 시간을 보내기 위해
- ⑤ 집안에 내려온 책이므로
- ⑥ 전통이므로
- ⑦ 그저 남이 하니까
- ⑧ 기타

4. 맨 처음 가사를 읽고 난 후 느낌은 어떠 했습니까?

- ① 아주 좋았다 ② 좋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안 좋았다
- ⑤ 아주 안 좋았다

## II. 생애의 가사경험

1. 지금까지 읽은 가사는 무엇, 무엇 입니까?(가사의 제목을 아는 대로)

2. 가장 많이 읽은 가사는 무엇 입니까?(가사별, 회수, 또는 부분적으로 읽은 가사는?)

2-1.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3. 지금까지 읽은 가사의 지은이를 아십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3-1. ① 안다면 누구입니까?

3-2. ② 모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연령대별로는 주로 언제 많이 읽었습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후

5. 생애주기별로는 주로 언제 많이 읽었습니까?

- ① 출가전 ② 출가후 ③ 장년 ④ 환갑전 ⑤ 환갑후

6. 계절별로는 주로 언제 많이 읽었습니까?

-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6-1.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7. 하루 중에는 주로 언제 많이 읽었습니까?

- ① 새벽 ② 아침 먹고 난 후 ③ 오전 ④ 오후 ⑤ 저녁 먹고 나서 ⑥ 밤
- ⑦ 기타

8. 가사를 읽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소리내어 읽음(영송) ②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읽음
- ③ 노래조로 읽음 ④ 기타

9. 가사를 누구 앞에서 영송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시어머니 ② 친정어머니 ③ 시아버지 ④ 친정아버지 ⑤ 남편
- ⑥ 동생 ⑦ 친지 ⑧ 친구 ⑨ 아들 ⑩ 딸 ⑪ 동서 ⑫ 손녀 ⑬ 기타
- ⑭없다, 혼자서만 읽는다

9-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그때 듣는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① 아주 좋아했다 ② 좋아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안 좋아했다

⑤ 아주 안좋아 했다

10-1. (①, ② 선택)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10-2. (③, ④, ⑤ 선택) 싫어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11. 가사를 영송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공부가 된다 ② 소일하기가 좋다 ③ 다른 사람이 좋아 한다
- ④ 남들 하지 못하니 자랑스럽다 ⑤ 기타

12. 가장 좋은 재미있었던 가사는 무엇입니까?

12-1. 가장 좋은 재미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연령대별로 가장 좋았던 가사는 무엇입니까?

- ① 10대 -
- ② 20대 -
- ③ 30대 -
- ④ 40대 -
- ⑤ 50대 -
- ⑥ 60대 -
- ⑦ 70대 이후 -

13-1. 좋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10대 -
- ② 20대 -
- ③ 30대 -
- ④ 40대 -
- ⑤ 50대 -
- ⑥ 60대 -
- ⑦ 70대 이후 -

14. 생애주기별로는 가장 좋았던 가사는 무엇입니까?

- ① 출가전 -
- ② 출가후 -
- ③ 장년 -
- ④ 환갑전 -
- ⑤ 환갑후 -

14-1. 좋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출가전 -
- ② 출가후 -
- ③ 장년 -
- ④ 환갑전 -
- ⑤ 환갑후 -

15. 좋지 않은 가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5-1.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2.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다음 분들 중 누구에게 가사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 ① 친정어머니 ② 시어머니 ③ 언니 ④ 동생 ⑤ 딸 ⑥ 아들
- ⑦ 친지 ⑧ 친구 ⑨ 동서 ⑩ 손녀 ⑪ 기타

16-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추천하고 싶지 않은 가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7-1.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2.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 가사는 어떻게 입수하였습니까?

- ① 친가 - 외조모 - 친정어머니
- ② 시가 - 시조모 - 시어머니
- ③ 빌림(친지, 친구)
- ④ 구입
- ⑤ 기타

19. 가사를 읽는데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 입니까?

- ① 시어머니 ② 친정어머니 ③ 시아버지 ④ 친정아버지 ⑤ 남편
- ⑥ 시동생 ⑦ 언니 ⑧ 동생 ⑨ 친지 ⑩ 친구 ⑪ 아들 ⑫ 딸
- ⑬ 손위동서 ⑭ 손아래 동서 ⑮ 기타

19-1. 방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여자라서 ② 일해야 하니까 ③ 기타

19-2. 방해한 방법이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 ① 가사를 뺏어갔다 ② 가사를 감춰두었다 ③ 가사를 찢었다
- ④ 꾸중을 했다 ⑤ 체벌을 했다 ⑥ 기타

19-3. 방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① 저항하고 그냥 읽었다 ② 감춰두고 몰래 읽었다
- ③ 읽는 것을 포기 했다 ④ 기타

20. 주위에서 가사를 읽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0-1.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① 글을 몰라서 ② 재미를 몰라서
- ③ 읽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④ 기타

21. 가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III. 가사필사경험

1. 가사를 옮겨 써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가사입니까?

(몇 권의 가사를 필사했는지 파악)

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용이 재미있어서 다시 보려고
- ② 글씨를 배우려고
- ③ 언문을 깨치려고
- ④ 읽은 기념으로

- ⑤ 보존과 수집을 위해
- ⑥ 남에게 읽히려고
- ⑦ 선물을 하려고
- ⑧ 기타

3. 주로 언제 옮겨 썼습니까?

- ① 출가전 -
- ② 출가후 -
- ③ 장년 -
- ④ 환갑전 -
- ⑤ 환갑후 -

IV. 가사 소장 경험

1. 가지고 있는 가사는 무엇입니까? (몇 권씩 갖고 있나요?)

2. 가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용이 재미있어서 다시 보려고
- ② 읽은 기념으로
- ③ 보존과 수집을 위해
- ④ 후손에게 가르치고 물려주기 위해
- ⑤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 ⑥ 기타

3. 지금 가지고 있는 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돌려 읽고 있다 ② 후손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 ③ 활용 못하고 있다 ④ 기타

4. 가지고 있는 가사를 꼭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 입니까?

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가지고 있는 가사 중 인쇄나 출판하고 싶은 가사는 어떤 것입니까?

5-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잃어버린 가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V. 가사창작경험

1. 가사를 창작한 것이 있습니까?

2. 어떤내용입니까?

3. 창작한 연령은?

4. 창작동기는?

5. 앞으로 꼭 창작하고 싶은 가사가 있는 지요? 그 내용은?

VI. 인구통계적 변수

1. NO.

2. 성명 (한글)

(한자)

3. 택호 (친가) (시가)
4. 주민번호 (성별) 남, 여
5. 연령(\*주민번호와 다를 수도 있음)
6. 주소 (현주소)  
(원적지, 친정)
7. 이사관계
8. 연락처
9. 교육정도
10. 건강상태 (특히 치아 상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Life experience of Naebanggasa entertainers

Lee, Jeong-ok

This study is a report based on general and quantitative data about consciousness and entertaining style of Naebanggasa which are appreciated and circulated in Kyungsangbukdo. Its subjects are Naebanggasa entertainers in Kyungsangbukdo. This study is very meaningful as the first report done by the method of questionnaires and analysis, which are not popular in Korean literature. I concluded that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surviving Naebanggasa entertainers is strongly useful if whole investigation of entertainers's consciousness is needed.

This study has 44 questions including 13 questions in population statistic variants.

The survey subjects are 150 old females in Andong, Kyungsangbukdo. There were no response questions since the old didn't understand the survey contents and I got 100 questionnaire papers. The survey period is from October in 2002 to April in 2003, during this period I avoided the busy farming time. The data analysis was made with SPSS and MS-Excel program.

Should do the verbal survey by interview and there were no responses due to too many questions. Also this survey might be supplemented because it has overlapping questions.

Key words: Naebanggasa Life experience Naebanggasa entertainers, old females  
in Andong